

번호 05-2

제 목	국문	뇌혈관질환의 의료보험청구자료 상병기호의 정확도에 관한 연구			
	영문	Accuracy of cerebrovascular disease diagnosis in National Medical Insurance Claims			
저 자 및 소 속	국문	박종구, 김기순, 김춘배, 이태용, 이강숙, 이덕희, 이선희, 지선하, 서일, 고광욱, 류소연, 박기호, 박운제, 왕승준, 이화순, 채유미, 홍현숙, 서진숙 연세대 원주의대, 조선의대, 충남의대, 가톨릭의대, 고신의대, 이화의대 및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대한의무기록협회			
	영문	Jong Ku Park, Ki Soon Kim, Chun-Bae Kim, Tae-Yong Lee, Kang-Sook Lee, Duk Hee Lee, Sunhee Lee, Sun Ha Jee, Il Suh, Kwang-wook Koh, So Yeon Ryu, <u>Kee-ho Park</u> , Woonje Park, Seungjun Wang, Hwasoon Lee, Yoomi Chae, Hyensook Hong, Jin Sook Suh Depts.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Kosin University, Medical College of Ewha Womans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Korean Medical Record Association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O)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O)	발표 형식	구 연 (O)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O),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우리 나라 심혈관질환 국가감시체계 수립에 앞서 심근경색증에 대한 의료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상병기호의 정확도와 부정확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연구대상자는 KMIC 코호트(의료보험관리공단의 적용대상자 중 1990년과 1992년에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남성 피보험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10%를 단순 무작위 추출한 115,600명) 중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전국 130개 의료기관에 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한 626명이다. 이들에 대해 심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연구회의 공동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의무기록사들이 1999년 4월과 5월 2개월 동안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뇌혈관질환의 진단기준은 WHO Monica Project, ARIC Study 등에서 사용한 기준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뇌혈관질환 상병기호의 정확성에 대한 1, 2차 평가 결과, 뇌혈관질환이 아닌 경우는 부정확 사유를 조사하였다.</p>					

3. 연구 결과

가. 뇌혈관질환 상병기호의 정확도는 67.9%(425명)였고, 8.2%(51명)의 의무기록이 의료기관 폐쇄, 전산화 미비, 의무기록지의 누락 등으로 조회가 불가능하였다. 63명(10.0%)의 의무기록은 '주요 임상 증상 및 이학적 소견'이나 '신경학적 증상'등의 자료가 결여되어 자료 불충분으로 분류되었다.

나. 뇌혈관질환 상병기호의 부정확 사유는 '보험급여 심사기준에 맞추기 위해서'가 52.9%로서 가장 많았고, 발생 주무부서는 의료기관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보험심사부서가 41.3%로 가장 높았다.

다. 뇌혈관질환 상병기호의 정확도 관련 요인분석 결과, 의료기관의 소유형태($p=0.000$)와 의무기록사 등록여부($p=0.016$)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고 찰

동일 상병내에서도 연구자나 연구방법에 따라 정확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의무기록사의 등록여부에 따라 정확도의 변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혈관질환 국가감시체계 수립 및 운영시에는 일차적으로 의무기록사가 등록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 근거하여야 하며 의료보험청구자료의 상병기호는 이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보완적인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뇌혈관질환 진단의 정확도를 추정하였으나, 모든 뇌혈관질환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심혈관질환 국가감시체계 운영시에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단위의 등록사업(community-based registry)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